



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Newsletter



Volume 64 May 2007

23 회 총회를 앞두고

여성회의 총회는 아주 중요한 회의로써 회원들께 지난 한해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을 보고하고 이사를 선출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나 이번 여성회의 23차 총회는 회순대로만 진행하는 총회가 아니라 현재 270여명의 여성회 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들을 다 한자리에 모시고 여성회의 업무, 활동, 서비스에 대한 보고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여성회가 나아가야 할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만남의 장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하여 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주 만나뵙는 회원들이 계시는가 하면 익명으로 여성회를 지원해주시는 회원들도 계시고 또 자주 만나 뵙지 못하는 회원들도 계십니다. 여성회에서는 회원 한분 한분께서 여성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연락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또한 의견도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서 “건강한 가정,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성회는 그 동안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고의 결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총회는 여성회와 회원들께서 더욱더 가까워 질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오픈 하우스 형식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 하셔서 다른 회원분들도 만나시고 또한 여성회가 나아갈길에 대하여 의견도 말씀해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영리

여성회 사무장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제 23차 정기 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올해 22주년을 맞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정기 총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일시: 2007년 7월 18일(수) 오후 6시

장소: 캐나다 한인 여성회

27 Madison Avenue 2층 세미나실

회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차 례

1면	23 회 총회를 앞두고
2면	직원/자원봉사자 단상
3면	여성회 소식
4면	'가정 지킴이' 가정 폭력 방지 프로그램
5면	서비스 이용자의 소리
6면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7면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8면	기부금/자원봉사/회원가입



직원 단상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1년에 걸쳐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outreach project를 담당하게 된 김민경입니다. 그동안 가정폭력과 관련된 뉴스나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같은 여성으로서 마음이 아팠던 저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한인 사회에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의 일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벽에 붙은 공익광고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 붙었습니다. 만삭이 된 한 여성이, 온 얼굴과 전신에 시퍼런 피멍이 든 나체상태로, 배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임신을 약점으로 잡아 본격적으로 폭력이 시작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 광고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한인 가정에서는 이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outreach project는 일반 한인 여성분들의 참여를 밑거름으로, 한인 사회 전반에 가정폭력 예방을 교육하고 혹시 그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피해 여성들이 계시면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 가정폭력예방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V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민경-

자원 봉사자의 글

작년 여름부터 캐나다 생활을 시작한 나는 한 달 후쯤 운이 좋게도 바로 여성회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정착 프로그램을 안내받았고 자원봉사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 작년9월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 기초반수업이다. 주로 컴퓨터사용법과 인터넷, 이메일, 정보 검색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 쉽게 설명하고 반복적인 실행을 통해 컴퓨터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여기며 수업을 하고 있다. 한 달의 수업을 듣고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시며 따뜻한 감사의 말을 건네신다. 그 순간 나는 뿌듯함을 느낌과 동시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린다. 단순히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를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얻었다.

나는 자원봉사를 통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캐나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기만족을 얻었다. 컴퓨터를 몰라도 불편함이 없지만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배우고자 오시는 어르신들을 통해 삶의 자세도 배웠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나에게 캐나다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한국적인 것과의 단절이 아니라 적절한 조화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그로 인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되찾았고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마음의 여유도 가지게 되었다. 지극히 사소한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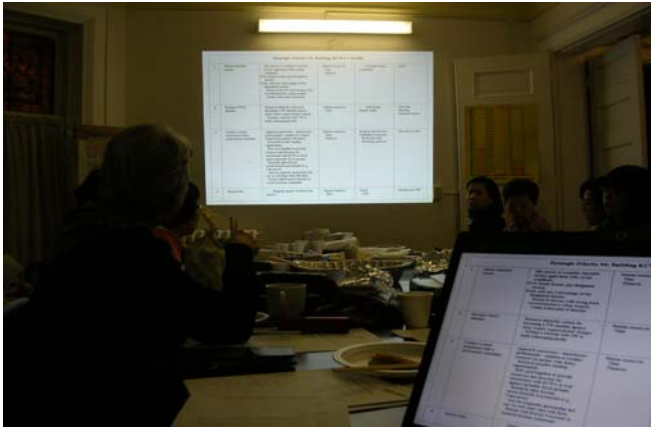
자원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에서 나의 활동이 대부분 여성회를 통해 이루어져 여성회를 빼고는 내 생활을 말할 수가 없다.

이 지면을 통해 따뜻한 환영을 해준 여성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장미선-



여성회 소식



- ◆ 여성회 이사진과 직원들이 올 2007년 동안 제공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매우 풍성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아이디어가 개발되었다.



- ◆ 4월 5일 여성회가 그동안 제공해온 정착서비스가 온주 시민부에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사무실 업그레이드 펀딩을 온주 이민부 장관이 직접 여성회를 방문하여 5만불을 전해주었다. 이 펀딩은 현재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직원들의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 가구, 사무실 가구 등을 구입하고 여성회 서비스 이용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램프(장애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우리 가정에 폭력이 있으면...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서히 가정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가족간에 신뢰감이 무너집니다.

사랑이나 행복, 평화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불안, 긴장, 불행감이 전파되고

부모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

실패감이 가득차게 됩니다.

사랑과 정직보다는 증오와 거짓, 위선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은 없고

가장 소중한 당신의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 사단법인 열린 가족상담 센터 -

여성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원(1년/평생)이나 기부자로 여성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지킴이 -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Domestic Violence’, 즉 가정폭력이란 단어는 더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정폭력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이나 캐나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캐나다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분류해 한국에 비해서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인가정에서는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집만의 가정사로 간주하거나 학대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또는 경찰, 법제도와 같은 캐나다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여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민과 관련된 신분 보장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엔, 혹시 신고후 추방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로 더욱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자의 10가정 중 한 가정이 배우자의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정착으로 인한 가족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정폭력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이인가정을 돕기 위해, 한인여성회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1년간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부터 학대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이르기까지의 지식과 정보를 동료지도자 훈련과 한인 커뮤니티에서의 아웃리치 워크숍을 통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정폭력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바로잡고, 캐나다의 법제도를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학대 상황을 예방함은 물론, 현재 피해 가정들에게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가정폭력 예방과 지역사회 봉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후에는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친구와 이웃들을 대상으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온타리오 법무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동료지도자 트레이닝은 오는 7월부터 약 한달간 5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등록 및 문의는 한인여성회 DV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전화416-340-1234 또는 이메일 dvc@kcwa.net

김민경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This project is funded by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서비스 이용자의 소리

박지영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4월 어학 연수의 목적으로 입국한 22세 학생 박지영입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였지만 한국에 있을 때 Working Holiday Visa를 취득하였고, 그것을 활용하여 캐나다 내에서도 훗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경력을 쌓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타 학생들처럼 특정 유학원을 통해 캐나다에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제가 직접 찾아나섰어야 했고, 그렇게 하여 처음 접하게 된 한인 봉사기관이 바로 “한인 여성회”였습니다. 아무런 정보없이 한인정보지만을 보고 찾아간 “한인 여성회”의 금융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캐나다 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학생의 신분에서 Canadian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게 되었던 가장 중요했던 정보는 캐나다에서는 취업을 할 때 Reference Letter를 요구함으로써 Canadian과의 experience를 중시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정보를 알지 못했었다면 Job apply이후 Resume와 2 Reference Letters를 가지고 Interview 오라고 할 당시 어쩌면 Reference Letters가 없어서 좋은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미나 참석 이후 여러 기관에서 장기간 Volunteer를 하면서 Reference Letter를 받아 제가 원하는 분야의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는 Volunteer를 하다 알게 된 중국 사람들 집에 Room Rent를 하여 살게 되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게 아니었던 지.. 첫 달에 마지막 달 비용까지 Deposit으로 지불한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 갑작스럽게 이사를 갈 것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인 분 말대로 이사를 가겠으니 나머지 Deposit은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으나 한 달동안 생활하면서 생긴 Damage에 대한 Charge를 하겠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방에는 단지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만 있었을 뿐인데.. 무슨 소리인지.. 아마도 캐나다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이란 것을 알고 Deposit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미리 기록해 두었던 한인 봉사단체에 모두 연락을 취해봤지만.. 어느 한 곳도 시원한 대답을 해 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걱정거리는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긴 했지만.. 해결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인 여성회”에 연락을 하였고, 그 곳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완전한 해결책을 받았습니다. 온타리오Rent관련 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주인의 잘못이 거의 확실 시 되는 상황이기에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에 소장을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얘기를 주인에게 한 뒤 아무런 문제없이 100% 제 Deposit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여성건강검진을 무료로 시행한다는 정보를 E-mail로 받았었고, 그렇게 건강검진 신청을 하여 Health Card가 없던 유학생 신분이었지만 무료로 양 검진까지 받았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한번 이상 여성회의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께 E-mail로 정보를 알려주시는 세심한 배려 덕분에 회사 생활로 개인적인 시간도 없이 바쁘게 생활하던 와중에도 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수 많은 “한인 여성회”의 좋은 행사들 중에서 제가 참여했던 행사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저의 첫 캐나다 생활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었기에 제가 만나는 한인 이민자분들이나 유학생들에게도 언제나 기회가 된다면 “한인 여성회”를 방문하여 그런 좋은 행사에 참여해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회”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저는 이제 Work permit이 만료가 되어 다니던 회사를 모두 정리를 하였고,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남은 6개월이란 기간동안에는 “한인 여성회”를 위하여 Volunteer를 함으로써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민자 분들이나 또는 저 처럼 유학생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한인 여성회”의 행사에 많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길지 않은 글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인 여성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 컴퓨터 교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는 컴퓨터 교실은 매달 초에 시작해서 하루 2시간씩 4주 완성반으로 진행. 기초반의 경우, 이메일 사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급반은 이메일 사용법을 익히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사용법을 배워보고 또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워드프로세싱이나 엑셀 사용법도 익히고 있다.

- 취업 및 채용 정보 공고

한인여성회 웹사이트를 통한 취업 정보 및 채용 공고 제공. 한인 커뮤니티 및 토론토 인근 지역사회에서 보내오는 취업과 채용에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인여성회 웹사이트 취업공고란에 게재.

- 취업세미나

원스톱 정착 오리엔테이션 세째 주 <취업 및 비즈니스 정보>를 통해 제공된 일반적인 캐나다 취업을 위한 정보의 연장선으로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설명회 형식으로 제공.

1월: 커리어 센터 정보제공.

3월: <풀타임 취업을 위한 전략> 정보 설명회.

5월: <풀타임 취업을 위한 트레이닝 정보> 정보 설명회

3월 부터 제공된 정보 설명회는 토론토 교육청의 Transition to work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취업 준비생을 캐나다 정부의 취업 카운셀러에게 연계시키는 설명회를 진행중에 있다.

- 취업 상담: 일대일 상담 및 온라인 상담

한인여성회에서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취업 상담은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이용한 문의에서 부터 이메일과 웹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취업 상담까지 일대일 및 온라인 상담등 모든 경로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토론토 이외의 지역에서 취업 상담을 하고자 하는 한인들의 경우 온라인 상담을 애용하고 있다. 지역적

거리감을 해소한 온라인 상담으로 인해 한인여성회의 서비스 지역이 온타리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인들이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뉴브런스윅이나 노바 스코시아 등의 대서양 연안주까지 확장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인종 차별 워크숍

한인 여성회는 지난해 부터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Pan Asian Anti Racism Network에 동참하여 정기적으로 다른 아시아인 커뮤니티와 회의를 갖고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을 이슈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 결과로 지난 5월 23일 아시아 문화 유산의 달 (Asian Heritage Month)의 문화 행사의 하나로 <아시아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 Civic ParticipAsian> 공동으로 기획하여 성공리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의 주제는 아시아인, 특히 젊은 아시아인들의 정계 진출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대안점을 찾아보자는 것. 한인을 대표해서는 한인여성회의 추천으로 한인 학생 협의회의 전회장인 로라곽이 행사의 사회를 보았다. 이 날 행사에는 현직 교육위원에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젊은 아시아계 신임 정치인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이력서 작성 서비스

캐나다 취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력서 작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한인여성회를 통해 이력서 작성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력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언제라도 한인여성회를 방문 도움을받을 수 있다. 이력서 작성의 기본적인 정보는 원스톱 정착 오리엔테이션 세째 주 <취업 및 비즈니스 정보>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프로젝트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프로젝트의 7개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동료부모 지도자 졸업식이 4월 14일 노스욕 시빅센터에서 열렸다. 여성회에서 훈련을 받은 16명의 1기 동료부모 지도자들은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에서 100명 이 넘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건국과 아시아 커뮤니티에이즈서비스(ACAS)의 진행, 온타리오 트릴리움 재단(Ontario Trillium Foundation)의 재정지원으로 실시 되고 있다.



- 영어공부를 위한 English Café, ESL Food Guide/ Banking/ Police 반이 1월 부터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 정착에 필요한 식품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 은행, 경찰에 관한 정보를 영어공부와 함께하는 ESL , 신문의 기사를 갖고 토론하며 회화능력 강화를 위한 English Café 는 빠른 정착 도모를 위하여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 음식으로 이해하는 캐나다 정착 도모를 위한 ‘스마트 쇼핑’ 프로그램이 4월 18일과 25일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슈퍼마켓과 특별시장의 특징, 정보, 식품구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푸사테리스 마켓 투어도 함께 병행하였다
- 12월 부터 실시되었던 뜨개질 교실에서는 이민여성들의 사회적 고립을 감소하고 정착 정보 교환을 하며 가족의 사랑을 나눌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뜨개질의 기초부터 지도하여 목도리, 모자, 스웨터, 조끼 등을 지도하였으며 3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참여하였던 회원들은 ‘뜨사모’ 동아리를 결성하여 자조적인 모임을 갖으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정서적으로 더 풍요로운 이민 생활을 위한 ‘그리며 생각하며’ 성인미술교실 회원들은 2월 3일 여성회 22주년 기금 모금의 밤 행사에서 이혜선 선생님의 지도로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 시민권 시험 대비를 위한 강좌가 2월 7일 부터 4주간 실시되었으며 강좌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의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하고 모의 시험을 통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3월 27일 부터 4월 말까지 제공하여 한인 커뮤니티의 대상자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였다.
- 기업, 투자, 자영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온타리오 사업 설명회: Doing Business in Ontario’를 5월 17일 온타리오 경제개발 및 무역부 산하 비즈니스 이민부서에서 실시하였는데 여성회가 세미나 참석자 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 안내 서비스를 지원 하였다.

- ONE-STOP 정착 오리엔테이션 둘째 주 음식문화와 타민족 요리 배우기 시간 3-5월에는 독일, 필리핀, 베트남 요리를 직접 각 나라의 주부 자원봉사자 들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프로그램 시간을 통하여 고유의 타민족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식품 정보도 접할 수 있었다.

● 자원봉사 활동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노숙자 쉼터 Good Shepherd Centre와 Scott Mission에서 월 4회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캐나다 사회 복지 서비스 이해와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에 도모하고자 자원 봉사 활동을 실시 하고 있다.

Good Shepherd Centre

- 6월 11일 (월) 오전 10시- 오후 2시
- 6월 16일 (토) 오전 10시-오후 2시
- 6월 23일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 7월 16일 (월) 오전 10시- 오후 2시
- 7월 21일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 7월 28일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 8월 13일 (월) 오전 10시- 오후 2시
- 8월 18일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 8월 25일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 9월 10일 (월) 오전 10시- 오후 2시
- 9월 15일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 9월 22일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 10월 8일 (월) 오전 10시- 오후 2시
- 10월 20일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 10월 27일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 11월 12일 (월) 오전 10시- 오후2시
- 11월 17일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 11월 24일 (토) 오전 10시- 오후 2시
- 12월 10일 (월) 오전 10시- 오후 2시
- 12월 15일 (토) 오전 10시- 오후2시
- 12월 22일 (토) 오전 10시- 오후2시

Scott Mission

- 6월 16일 (토) 오전 9시30분- 1시
- 7월 21일 (토) 오전 9시30분- 1시
- 8월 18일 (토) 오전 9시30분-1시
- 9월 13일 (목) 오전 9시30분- 1시
- 10월 18일(목) 오전 9시30분- 1시
- 11월 15일(목) 오전 9시30분-1시
- 12월 15일(토) 오전 9시30분-1시



기부금 및 자원봉사 현황(존칭은 생략)

(2007년 1월~2007년 5월)

♣일반 기부자

Ester Hong, 윤지숙, 하영리, 유정자, 강경순, 손재선, 최경애, Reynold Kim, 이지연, 이규희, Dr. Lee J.R.,이진수, 여성회 명예이사님, Cui Yu, 안주영, 김세영, Benham Esfehanizade, 말씀의 교회, 김지인, 류신은, 이승신, 신규수, Emily Kim, 김시석, 연세대 녹양회, 신복실, Michael Diep, 임희승 부모님, 임희승, Matt Condiatto, 김수영, 총토론토영사관, 문재철, TD Bank, 임길순, 강영옥, 그외 무명

♣물품 기부자

Lily Park, 하영리, 송희정, 홍신애, 조윤경, 종로서적, Ava Khavat, Helen Candiotto, 임희승, 신복실, 서울의류, 최성학, 갤러리아 슈퍼마켓, 무한 타올, 김양심, 그외 무명

♣고통분담 기부자

한귀남, Jai Sook Martin, 교차로, 그외 무명

♣자원봉사자

박원희, 장미선, 오병천, 홍성철, 조상희, Allana Choi, 한지혜, 안은하, 이은경, Kat Ota, Hamilton Choi, Evangeline Imson, 이종재, 박영숙, 강영옥, 하영리, 정영득, 그외 무명

회원가입

♣1년 회원

구혜련, 조윤경, 박광자, 배남수, 김시석, 최금용, 김아가다, 최상봉, 최희정, 조현순, 김기성, 김옥자, 정경희, 김진구, 김광진, 김영숙, 김봉자, 김미애, 박순자, 김용자, 권경수, 계정옥, 송수인, 고복동, 이선희, 이윤정, 김진숙, 민계배, 손재선, 최봉순, 태명옥, 이민호, 신형두, 김애영, 윤지숙, 방정순, 윤기형, 윤현순, 이태환, 유화자, 임숙영, 신영주, 조미자, 황치홍, 유부현

♣평생 회원

김 효, 김미혜, 곽옥령

FUNDED BY:

캐나다 한인 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Tel: 416-340-1234
 Fax: 416-340-8114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명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목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 빈곤, 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